

## Anthony J. Tomasino 박사, 십계명, 세션 6: 계명 5 - 부모를 제자리에 두기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6번째 세션, 제5계명: 부모를 제자리에 두는 것.

이제 다섯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서, 이 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에 관한 계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안식일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계명을 다루었는데, 여기에는 환경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는 부모를 그들의 위치에 놓고, 다른 인류에 대한 우리의 책임 목록에서 부모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주제가 우리 시대에 다루기에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와 부모들 사이에는 일종의 관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대, 어쩌면 1960년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가장 잘 아는 현명한 아버지가 있었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고 현명한 조언을 해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와, 아이들에게 무시당하고 상사에게 학대당하는 호머 심슨이 있는데, 그는 완전히 패배자 같은 캐릭터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빠들이 광고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어쩌면 예전만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빠나 남편은 보통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아내나 아이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참 웃기는 일 이죠. 요즘은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잖아요. 누가 부모보다 권위를 더 잘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네, 십계명을 살펴보면 세 가지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는 하나님뿐 아니라 환경,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 동료 인간에 대해서도 말하고, 안식일 계명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계명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동료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다루는 몇 가지 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장 명백한 시작점인 살인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누군가를 대변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존중 해야만 그들의 재산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5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앞으로 나올 모든 부정적인 명령들과는 달리, 이 명령은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 중요성도 거의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3,50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시고, 호머 심슨이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을 예상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기에는 다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 첫째, 당연히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계명 중 일부의 모호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가 ?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왜 부모인가 ? 몇 년 전 제가 십계명에 대해 연구를 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 주석서, 목회 주석서에서 그가 이 계명에 대해 처음으로 한 말은, 만약 이 계명이 우리 시대에 쓰여졌다면, "부모는 자녀를 공경하라"는 내용에 더 가까웠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댓글을 읽어보니, 마치 작가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는 아이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가 존중한다는 것의 의미와 고대 사회에서 존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누군가 그들에게 펜을 쥐어주고 계약서를 써주고 해설을 쓰게 한다는 사실에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분명 그 사람은 배경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공경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이 계명에 대한 이 주석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위협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약성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아시다시피, 네 명예를 공경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 그것은 암시적인 위협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반대의 의미는,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니깐요. 따라서 여기에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형벌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암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계명에 이런 내용이 언급된 첫 번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선지서와 역사서, 이른바 신명기 역사서에서 부모의

공경보다는 이교 신 숭배가 크게 강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쫓겨난 이유도 이교 신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십계명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내포된 위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일까요? 왜 이 계명에서 그러한 위협이 제기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쫓겨나 유배될 때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을 제대로 이해 하기 위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명예와 수치심의 문화와 공로 또는 죄책감의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수치심의 문화와 죄책감의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 맥락에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해서 여기서도 공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인류학자들의 광범위한 탐구를 거쳐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되었습니다.

서구 문화권, 즉 서구 문화권에 있는 우리 대부분, 영어를 구사하는 우리 대부분이 서구 문화권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공로와 죄책감이라는 관념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공로는 선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로는 좋은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업적은 보상을 받고, 사회에서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은 자신이 잘못된 일, 하지 말았어야 할 일, 혹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내면의 감정입니다. 죄책감은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는 죄책감과 공로의 축보다는 명예와 수치심의 축에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동양 문화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명예는 행동과 지위를 통해 얻어지는 공적인 면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특별히 공덕이 있는 일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영예를 얻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들은 일정한 양의 영예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직위를 받으면, 그들은 일정한 양의 영예를 받게 됩니다.

명예와 수치의 개념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명예와 자신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스더기의 핵심 주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된 하만이 어느 정도 대중의 인정을 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개라는 사람은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하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는 다소 소수 의견일지 모르지만, 모르드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하만과 같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좋은 삶든 아무런 상관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지위가 어느 정도 명예를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그 명예를 거부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르드개는 엄청난 곤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는 당신의 행동, 당신이 행한 일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지위, 즉 사회에서 당신이 차지하는 위치를 통해서도 얻어지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거부된 공적인 명예입니다. 따라서 죄책감과 다릅니다. 죄책감은 내면의 것이고 비밀입니다.

수치심은 공적인 문제입니다. 수치심은 자신이 한 일이나 가까운 사람이 한 일로 인해 명예를 잃었을 때, 또는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자신의 지위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명예를 주기를 거부한 것처럼, 누군가가 명예를 거부했을 때 발생합니다. 네, 맞아요. 전통 문화권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닌 명예에 따라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 특히 서구 사회에서 명예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많은 동양 문화권의 명예 개념에 비해 매우 얕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카보드(kavod)' 또는 '카베드(kabed)'는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무언가를 중요하거나 무게 있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존중 해야 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들을 '헤비급'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주 비슷한 이미지가 쓰이고 있죠. 하지만 명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와 더 깊이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장로가 될 때까지 오래 산다면 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죽지 않는 것뿐이었는데, 꽤 멋지죠. 하지만 네, 물론 전쟁 영웅 같은 사람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 명예를 안겨줄 수도 있겠죠. 좋은 결혼식이나 좋은 결혼 같은 걸 얻어주는 사람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사회에서 당신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 좋은 혈통이나 조상의 업적과 같은 이유로 명예로운 가문이었다면, 당신은 비슷한 수준의 명예, 비슷한 수준의 대중적 인정을 받는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혼 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주었다면, 그들의 결혼 전망, 직업과 지위 등 모든 것이 당연히 손상될 것입니다.

명예는 사람에게 특권을 가져다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중 하나에서 말씀하신 식탁의 명예로운 자리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오른편에 앉는 사람은 특별한 영예, 즉 자신의 지위를 공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읽는 기사 제목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실은 명예가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자 그대로, 불명예보다 죽음이 먼저라는 말을 들으면 클링온족이나 고대 스파르타인 같은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스스로에게 수치를 안겨준다는 생각은 자신뿐 아니라 자녀, 손주, 어쩌면 대대로 이어지는 가족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명예 보다 죽음이 먼저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과 공로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공로를 쌓으면 그걸 즐길 수 있기를 바라잖아요.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끼면, 글썄요, 대개 그냥 참아내죠. 참고, 상담이나 받아보는 식으로요. 하지만 공개적인 스캔들 때문에 자살한다는 생각은 우리 사회에서 뉴스거리가 되죠.

다른 사회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런 일이 용인되고 기대되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본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는데, 무빈 라후가 18살 여동생을 총으로 쏜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동생이 기독교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을 잃었고, 아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부모는 뭐라고 했을까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우리 가족은 망가졌어요 . " 왜냐고요? 아들 때문이에요? 죽어서도 이 부끄러운 여자 때문에 망가질 거예요.

그의 가족을 파괴한 것은 그의 딸이지, 여동생을 죽인 것은 그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니, 그의 아들이 명예로운 일을 한 것은 딸이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무슬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명예와 수치가 공존하는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거나 살인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자신에게 가해진 수치심 때문에 대대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 문화에서 명예와 수치심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다섯 번째 계명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지위에 걸맞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사회적 역할과 위치 때문에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아무런 상관없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가족과 사회에서 부모가 맡은 역할에 따라 부모가 어떻게 대우 받고 존경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특정한 기대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일까요? 왜 여기서 부모를 따로 구분하는 걸까요?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네 왕을 공경하라” 같은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대 사회에는 권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고, 스스로를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비난하는 걸까요? 몇 가지 좋은 설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성경에서 실제로 뒷받침되고, 일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먹이고, 돌봐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될 가장 신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신의 대리인입니다. 비록 그들이 반드시 위대한 부모나 위대한 인물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서 그들의 역할은 우리가 성장하고 독립했을 때 신이 우리 삶에서 가져야 할 역할과 이상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부모님이 십계명에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존경해야 할 사람들의 목록 맨 위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우리 인간 사회와 인간관계에 미치는 깊은 영향력과 신과 같은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하나님을 자주 아버지라고 부르고, 때로는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지위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경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그 공경을 실천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음, 어느 정도는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순종을 의미할 겁니다. 이건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복종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있을 거야”라고 집단적으로 불평하죠 . “아, 아빠, 제발요.”

엄마, 제발요.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남자가 사무실에서 추첨에 당첨돼서 비디오 게임에 당첨됐대요. 집에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 비디오 게임을 세 아이 모두에게 줄 수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는 아이들 중 한 명에게 이 게임을 주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들이 나눠주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는 이것이 아이들에게 교훈을 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비디오 게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당연히 신이 났죠. 그리고 그는 “이 비디오 게임을 우리 집에서 제일 말 잘 듣는 아이에게 보상으로 줄 거야”라고 말했어요.

음 , 알았어요. ”라고 말하며 , “엄마 말 안 듣는 아이는 누구예요?”라고 묻습니다. 세 아이가 서로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더니, “엄마 말대로 하는 아이는 누구 예요?”라고 묻습니다. 세 아이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아이가 “알았어요, 아빠, 비디오 게임 가져가세요.”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존경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는 사항입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의심스럽 습니다 . 구약 성경에 모든 아이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은 있었습니다.

아이가 습관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입만 열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마을 어른들 앞에 데려가서 “내 자식 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할 수 있죠. 어른들은 끊임없이 저에게 입만 열면,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와. 그래. 그래.

꽤 가혹한 말씀이시군요 . 하지만 그 사회에서는 명예가 생명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에게 불순종하고 수치를 안겨주는 아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오히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을 거라고 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그 당시에는 불순종하는 아이들이 오늘날보다 훨씬 드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점을 생각해 보면, 다섯 번째 계명은 주로 아이들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주로 어른들과 어른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인 부모조차도 부모보다는 성인 자녀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부모가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어느 정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 이야기에서는 장남과 장녀 사이에 협력적인 관계가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안의 가장 연장자, 즉 가장은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으로 여겨졌습니다 . 그리고 그들이 존경받는다 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하는 말이 곧 법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장로들 사이에서는 그 권한을 좀 덜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만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가장인 가장이 온 가족의 서열을 꿰뚫어 보고 " 이게 내가 바라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거부하면 마을 원로들 앞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이 모든 것의 일부입니다. 지지 또한 분명히 이 모든 것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는 가족이 구성된 방식과 부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숫자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 예수님은 다섯 번째 계명을 어기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돕는 데 쓸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 그것으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당신들은 당신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옳게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들의 가르침은 단지 인간의 규칙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법적인, 어쩌면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리새인들이 악용했고, 실제로 후대 유대교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대교의 경전인 탈무드에 대한 미슈나에서 읽은 내용만으로도 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족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찾아와 "아버지, 제가 받아야 할 유산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아이들이 살아 있는 동안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는 건 흔한 일이었죠. 네, 맞아요.

장남은 두 배를 받을 것이다. 몫은 어린 아이들이 받는 돈의 두 배입니다. 아들이 넷이라면, 큰아들은 다른 두 아들의 두 배를 받습니다. 5등분해서 큰아들에게 두 배의 몫을 주고, 나머지 아이들은 각자 몫을 받습니다.

딸들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딸들을 포함시켜 유산을 주었다고 기록된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딸들은 남편의 부양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쨌든, 돈을 나눠서 아들에게 다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뭘로 먹고살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부모님을 부양하게 되죠.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일이죠. 아이들이 가장 필요할 때, 즉 인생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려고 할 때 돈을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그들에게 상속 재산을 주고, 그들은 그 돈으로 당신의 노후를 지원하는 거죠. 이는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제도였지만, 안타깝게도 남용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용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탈무드에 실제로 기록된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코르반(korban)이라고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코르반은 무슨 뜻일까요? 코르반은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바치다' 또는 '가까이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코르반은 '헌신하다', '신에게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아, 이 건물은 코르반입니다. 신께 바쳐진 건물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무덤을 발굴한 결과, 무덤 안에 "무엇이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코르반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쪽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만지지 마라. 만지면 신이 벌할 것이다." 그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코르반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주니어에게 유산을 주셨어요. 주니어는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아빠가 주신 돈은 이제 다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코르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30년 동안, 네, 그 돈은 코르반이 될 겁니다. 물론 그때쯤이면 아빠는 돌아가실 테고요. 그러면 부모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고, 아이는 그 돈을 은행에 넣어 두고 키우기만 할 겁니다.

에 대해서는 그냥 코르반이라고 선언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딸에게 돈을 주고 사위에게 코르반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사람들이 약간 미신적이라고 생각해야 했는데, 어찌면 경건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미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실제로 먹으면 신이 그들을 잡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는 꽤 흔한 관행이었고, 탈무드에서도 부모의 부양을 거부하는 것은 경건한 일로 인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교활한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탐욕스러운 아이들은 이제 경건함 때문에 자신의 탐욕을 변명할 수 있게 됐죠. 물론 신약 시대에는 부모를 제대로 공경 한다는 개념 자체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상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서적 지지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섯 번째 계명은 아이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심지어 어른들 도 어느 정도 부모님 께 순종하고 ,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표하고 , 필요한 신체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우리가 훨씬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께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성이 매우 높은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전 세대처럼 어르신이나 부모님께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을 낯선 사람에게 맡기고, 부모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돌봄을 맡기곤 합니다. 물론,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신체적, 재정적, 정서적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에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서적 지지의 필요성 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 수치는, 제가 이 통계를 아주 엉뚱하게 봤던 것 같은데, 제가 본 가장 신뢰할 만한 통계 중 하나는 요양원 거주자의 40%가 가족 면회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좀 무섭기도 하죠. 어떤 연구에 따르면 요양원에 있는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두 번 부모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매주, 때로는 일주일에 두세 번 부모님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심각하게 방치되어 왔습니다. 요양원 거주자의 30~45%는 외로움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요양원 방문을 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시설에 들렀는데, 치매 병동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복도에 휠체어에 앉아 계신 여성분이 계셨는데, 제가 지나가려고 하자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분이 "네가 내 아들인가? 네가 내 조이인가 ?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니요, 부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 입니다 . "라고 말하며 함께 기도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그냥 돌아서서 그 후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한 명에게

물어보니, 간호사가 “ 그녀의 아들은 여기 온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서 일했던 모든 시간. 그건 분명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현실이죠.

우리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존엄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전통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전통 사회에서 매우 소중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전수한다는 것은, 물론 성경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암송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요즘 들어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의 가치관과 전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치와 전통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들의 경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그 경고, 즉 바울이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업은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당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땅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음, 이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인 주님만을 경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예언서들에서 간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강조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특별한 계명 목록에서 특별히 언급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산 자의 땅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땅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을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대한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그 자식의 수명은 확실히 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땅에서 쫓겨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유배로 인해 사람들이 땅에서 집단적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아들 함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온 가족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온 후 포도원을 만들고, 땅의 사람이 된 이야기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농부였고, 자신이 심은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몹시 취해서 천막 안에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함이 와서 천막 안을 들여다보니 아버지 가 벌거벗은 채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아,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어. 개가 실수한 거잖아. 그런데 나가서 형들에게 "애들 아, 이거 알아? 아빠가 텐트 안에 누워 있고 벌거벗고 있잖아."라고 말하더라. 정말 심각한 일이었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가 아버지에게 공공연한 수치를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이 노인의 알몸을 보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건 안 돼. 금기야. 지금도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것이 그토록 심각한 것으로 여겨졌는지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설명을 내놓습니다. 가장 유명한 설명 중 하나는 함이 아버지를 동성애적으로 희롱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도 안 돼요.

성경은 그런 종류의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한 대학원생은 자기 마을에서도,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벌거 벗은 모습을 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

그리고 그들이 죽은 후에도 다른 장로들만이 시신을 매장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의 알몸을 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 그러니 함이 그저 시선을 돌리고, 몸을 숙이고, 입을 다물었다면 모든 것이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죠, 그는 형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 노아가 깨어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자, 함의 자손들을 저주하며 그들이 땅을 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고, 결국 부모를 부끄럽게 한 탓에 땅을 빼앗길 것입니다 .

네, 그건 십계명에 마지막 손질을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수치심 말이죠. 부모를 욕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세습적 가치관을 물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부모님은 감리고 신자셨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걸 강요한 적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들은 가치를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만연하고, 유산이 몰락하고, 결국 사회가 붕괴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될까요? 특히 바울이 신약에서 이 경고를 언급한 이유는, 바울이 어떻게든 이 경고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울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 땅에 남으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개념이 담겨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십계명이 현대 미국을 위해 쓰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사회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통을 잊고, 뿌리를 잃은 문화, 연장자를 멸시하는 문화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눈에 특히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얼마나 더 밀어붙일 수 있을지,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얼마나 더 확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판의 도끼가 떨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경고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들은 그저 밀어낼 수 있는 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흔히 묘사되는 방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노력해 왔고, 경험을 쌓았으며, 누군가 기꺼이 귀 기울여 준다면 나눌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와 그의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6차시, 5계명, 부모를 제자리에 두는 것.